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정선미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지도교수 황 희 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정 선 미

정선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주 심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권 연 희 (인)

위 원 교 육 학 박 사 황 희 숙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양육효능감	6
2. 양육스트레스	8
3. 가족기능성	10
4.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13
5. 양육효능감과 가족기능성	15
6. 영재성	17
III. 연구 방법	23
1. 연구대상	23
2. 연구도구	25
3. 연구절차	28
4. 자료분석	29
IV. 연구 결과	30
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30
2.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차이	32
3.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 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36

V.논의 및 결론 38

1. 논의	38
2. 결론 및 제언	41

<참고문헌>	43
--------------	----

<부록>	5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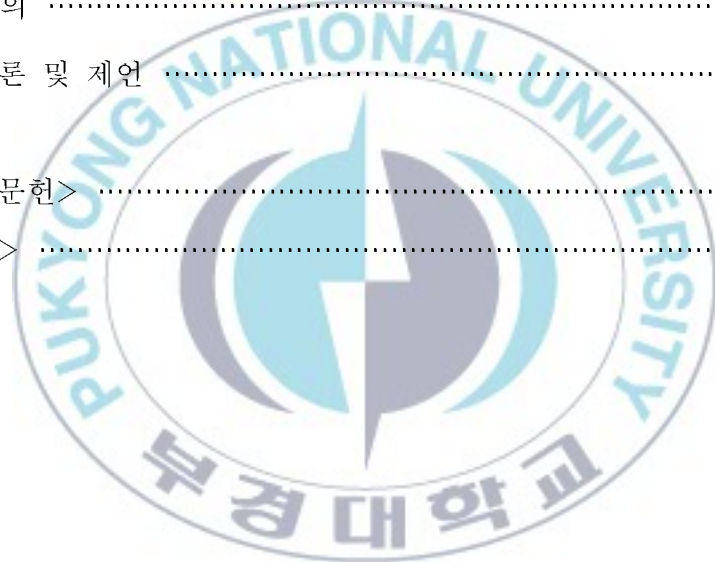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24
<표 2>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26
<표 3>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27
<표 4> FACESII의 가족기능성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28
<표 5>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t검증 결과	31
<표 6>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34
<표 7>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35
<표 8>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 의 영향	36
<표 9>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 의 영향	37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Jeong Seon Mi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nd differences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and how parenting efficacy effects the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al. By conducting this experiment, it can give the practical help to a mother with child in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 and als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which is needed for developing a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 development.

Followings are research questions that we set up to achieve our purpose discussed above.

First, what is the difference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Second, how is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Third, how does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s parenting efficacy effect the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al?

To solve above questions, we conducted an experiment on 97 mothers of young gifted children whom their children have been distinguished as gifted children and are actually going through the gifted children education program,

and 149 mothers of normal children whom their children are currently attending normal kindergartens.

There are three measurement tools we used in this experiment. One is a scale created by (Yi yang-hui, Jo young-suk, 2007)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Parenting efficacy scales and books(Sin suk-jae, 1997; Jo in-gyeong, 2004; Choe hyeong-seong, Jeong ok-bun, 2001; Allen, 1993;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nad, 1991) to measure Parenting efficacy. Another is a scale which An ji-young(2001) translated and modified the 'Parenting Daily Hassles' by Cric and Greenberg(1990) for Parenting stress measurement. The last one is FACESII scale developed by Olson(1982) to measure the family functional.

We also performe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test, regression analysis for check-up methods.

We can summarize our experiment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we found is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has meaningful differences from a mother of normal children in ways of communication, education, all parenting efficac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actions, all parenting efficacy, Family cohesion, family flexibility, all family functional.

Second, when we see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stress, family functional between a mother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parenting efficacy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al, and parenting stres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efficacy and family functional.

Third,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family functional to parenting efficacy for both mothers of young gifted children and normal children appeared to be significant. Among low level factors which effect the entire parenting efficacy, family flexibility and the role of parents came out to be sta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의 양육과 가정환경은 유아 발달의 초기 경험으로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부터 어머니에 관한 연구들은 양육 행동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태도 및 행동에 따라 자녀의 발달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고윤희,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았고(김명숙, 2008),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으며(이옥희,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낮고(공정희, 1998), 문제행동과 공격성이 나타났다고 밝힌바 있다(조영희,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유아기 때 교육에 많이 참여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았다(강홍숙, 2001)는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유아기에 부모가 얼마나 참여했는가가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어 유아의 시기와 부모양육의 영향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었다.

최근 부모 양육의 영향과 관련하여 양육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어떠한 측면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제가 밝혀지고 있다. 즉, 양육행동과 자녀 발달의 1차적 관계만 고려하기보다는 양육특성을 세분화하여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등의 세부 요인이 연구되고 있다(김가운, 2011; 김미경,

2010; 김미숙, 2005; 김선영, 2009; 김은혜, 2011; 김현미, 2004; 안지영, 2001; 조영숙, 2008). 또한 최근 가족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양육특성과 밀접한 관련(김수원, 2006; 장성희, 2010)이 있으므로 가족기능 또한 함께 연구되어야 할 쟁점이다.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합리적 지도를 하고(김미숙, 2005),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거부, 방임적인 양육을 보였다(김가운, 2011).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워짐을 밝혔으며(김수원, 2006), 유아의 창의적 행동특성이 가족기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장성희, 2010). 이처럼 부모의 양육특성이 유아에게 여러 측면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에 따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재아동과 관련해서 Clark(1997)은 가정은 “영재성의 요람”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영재의 초기 판별과 교육은 부모에 의해 이뤄짐을 고려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들은 영재아동의 부모들이 일반아동의 부모보다 양육과 관련한 요인들에서 더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정화(2004)는 영재 아동의 부모는 일반아동의 부모보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교육 참여,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취학 전 영재아동의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 발달에 소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조석희, 1987)는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석희(1987)에 따르면 영재아동의 부모들은 아동 중심의 학습활동을 전개하면서 자녀가 과제 수행에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힌트를 주어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자녀가 갑작스럽게 실력의 저조함을 보였을 때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편이었다. 또한 영재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고 자녀들이 하나의 과제에 집

착하고 있을 때 이러한 집착력을 길러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애쓰는 태도를 보이지만,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육태도는 보이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렇듯 영재 부모의 양육행동은 일반 아동의 부모의 경우보다 긍정적인 양육 측면을 보이면서도 성취와 관련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영재아동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영재아동 부모의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부모 양육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영재아동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 및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영재아동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연구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만, 영재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영재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구미숙(2003)은 영재유아 어머니는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수용적, 덜 거부적, 더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김동춘(2003)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애정적, 더 자율적, 덜 거부적, 덜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소희(2006)는 영재교육기관의 어머니는 일반교육기관의 어머니보다 애정적, 덜 거부적, 덜 통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양육태도에 관련된 논문만 있을 뿐, 세부적인 양육 특성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유아 어머니와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특성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적으로 우수한 유아 어머니의 양육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 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자녀양육과 관련된 과제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모의 신념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교육, 의사소통, 전반적 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

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와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어머니

가 어렵고 힘들다는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다. 가족기능성

가족기능성이란 가족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응통성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가족응통성은 상황적 혹은 발달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 관계, 관계적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을 의미한다.

라. 영재유아

본 연구에서 영재유아는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 만 3, 4, 5세 유아들로 영재성 판별 기준에 의거하여 K-ABC와 K-WPPSI 지능 검사에서 상위 약 15%이내에 포함되는 유아를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영재교육 가능 대상 유아를 영재유아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 또는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다(Teti & Gelfand, 1991). 만일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다(Bandura, 1999). 따라서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양육효능감은 부모와 자녀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케 하며(Johnson & Mash, 1989),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변인이다(Perry & Rasmussen, 1986).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과 자녀의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사회성 발달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전인옥, 1997). 부모가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유아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양육하며, 유아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도움을 제시하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하게 된다(Mondell & Tyler, 198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학문적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andura et. al, 1996; Brody et al., 1999)에 의하면 자신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동한다. 또한 효율적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제를 도와주는 등 적극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증명한 연구결과들도 있는데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직해주고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유아의 발달과 긍정적인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문혁준, 1999; 서소정, 2005)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발달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아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것은 유아의 자기 조절을 거쳐 유아의 학문적 능력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Brody et. al., 1999)들이 있다. 우희정과 이숙(1994)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이것은 자녀의 효능감 발달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인 양육효능감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자녀의 발달 측면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경옥과 전인옥(1999)은 어머니가 아동 중심적이고 성숙주의교육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 중심적이고 행동주의 교육 신념을 가진 경우에는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념과 효능감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위영희(1997)는 어머니의 교육 신념 중 성숙주의 신념과 상호 작용주의 신념이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riscilla와 Katherine(2000)는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경험은 모성교육이나 어머니 자신보다는 양육효능감이 중재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Dawn와 Susan(1997)의 연구에

서도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반응성에 대한 중재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방식은 부모자신의 효능감에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므로 다른 주요한 생활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박성연, 전춘애, 1998).

Crnic과 Greenberg(1990)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부모역할 수행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주요 생활사건 경험보다 더 주요한 스트레스 근원으로서 아동문제와 부모의 정신건강, 그리고 가족기능을 더 잘 예언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는 주요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부모의 아동행동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그에 따른 강압적인 부모반응과 더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되었다(신숙재, 1997 재인용).

부모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 부모가 자

녀양육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양육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Abidin, 1992).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tterson, 1984)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유아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으며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미, 도현심, 2004; 박성연, 한세영 1996; 박응임, 1998; 서민정 외, 2002;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 아동들은 높은 집단의 경우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우울감을 덜 느끼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으며, 아동에 대한 애정 정도가 깊고, 다루기 힘든 행동상의 문제가 많지 않은 자녀를 둔 경우 그러한 문제를 많이 가진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혜련, 1999).

이와 같이 부모 자신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스트레스의 원인보다는 부모의 지각과 연관하여 설명하는 연구들도 있다. 박성연, 한세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개인의 성격과 지각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써 부모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었다(박응임, 1998).

이처럼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연관되며 자녀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3. 가족기능성

가정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차적 환경으로서, 가정환경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Feldman, 1999 재인용).

가족의 기능성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나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을 말하는데(Paolucci, Hall, Axinn, 1977), 가족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점차적으로 세분화·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과 접근법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가족을 하나의 역동적 개방체제로 보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송남호, 1989). 가족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집단이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족의 기능성을 가족의 구조에 근거해서 설명하거나, 혹은 가족 의사소통, 응집성, 융통성, 갈등, 표현성, 통제, 정서적 유대 등을 강조하면서 가족원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본질이나 가족원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McCubbin, 1987).

Jakson(1965)은 가족을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로서, 가족원들이 서로 조직화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유형으로 행동하는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Feetham(1993)은 가족기능을 ‘구성원들과의 관계와 활동을 포함하며 가족이 개방체제로 유지되고 구성원들과 가족 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특히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적응, 협력, 애정 및 친밀감 등의 정서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체계이론에 입각한 연구자들의 견해에서 볼 때, 가족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시되는 개념은 가족 내 관계성과 개방적인 상호작용임을 알 수 있다.

Olson, Russell과 Sprenkle(1979)은 가족 치료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합하여 가족기능성을 크게 가족응집성과 가족응통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응집성은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유대감과 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유성의 정도이며, 가족이 함께 밀착되어 있는 정도를 뜻한다(Olson, 1985).

Olson(1985)은 가족응집성의 내용으로 첫째,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 둘째, 가족의 외부환경과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 셋째,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넷째,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다섯째, 가족이 공동 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의 허용정도, 여섯째, 가족의 공동 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일곱째, 의사결정의 유형, 여덟째, 가족과 개인의 흥미 및 취미 활동 보장의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8가지의 변인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응집성은 그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로 유리, 분리, 연결, 밀착의 네 등급으로 구분되며, 너무 밀착되거나 유리되지 않은 적절한 응집성을 보이는 가족이 개인의 자율과 가족 간에 균형을 이루어 기능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발전에도 최적의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Olson et., 1979, 1983).

가족응집성의 개념을 연구한 학자들 중 Minuchin(1974)은 전체로서의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경계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를 결정하는 규칙으로, 경계가 불확실하고 하위체계 간에 심한 간섭이 있을 경우 그러한 가족을 밀착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하위체계 간의 경계가 너무 분명하고 경직되어 있는 가족을 유리되어 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Hess와 Handel(1974)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

호작용 및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리와 연결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 차원은 가족생활은 역동적인 양상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가족과정이란 분리와 연결 사이에 만족스러운 위치 및 형태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하였다(권미나, 2004). 즉, 가족의 응집이란 가족원 간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개념으로써 가족원과의 상호작용 과정 및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족의 1차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융통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Olson, Russell & Sprenkle, 1983)되며,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응집과 함께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는 가족 내·외적인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규칙, 역할 등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이다. 이것은 가족원들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정도, 지도성, 양육태도, 가족 간의 협상유형,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가족규칙의 명시 및 융통성 등이 포함된다.

가족은 때때로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혹은 또 다른 극단적인 혼란된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가족원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변화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가족은 안정을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변화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Defrain, Olson, & Olson, 2002).

가족의 융통성을 진단하고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변인으로는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스타일, 리더십의 유형, 부모의 자녀훈육 스타일, 가족원들 간의 협상 능력,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 가족 규칙의 명확성 및 융

통성이 있다.

가족응집성과 마찬가지로 가족응통성도 그 수준이 적절할 때 가족 기능을 최적으로 촉진시킨다. 즉, 적절한 응통성을 갖고 있는 가족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변화에도 개방적이어서 가족원 개개인이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동시에 가족 전체가 성장을 경험 할 수 있다.

4.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관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의해 겪는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Abidin, 1990; Dumka, Stoerzinger, Jakson, & Roosa, 1996; 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 내 거주하는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어머니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어,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어머니의 연령, 소득수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서소정, 2004).

Dumka와 그 동료들(1996)도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들 역시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Kotchick와 그 동료들(1997)은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간

의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원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언급하였다. Levy-Shiff와 그 동료들(1998)은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양육효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또한 Scheel과 그 동료들(1998)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반면,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모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효능감을 연구한 Shapiro와 그 동료들(1994)에 따르면, 10대에 부모가 된 청소년 집단에게서는 성인이 된 후에 부모가 된 집단의 연구결과와 달리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효능감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10대에 어머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이 된 후에 부모가 된 경우에는 대체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연구의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예측해 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은 수준이었다(김은영, 2005; 김현미, 2004; 류기자, 2006; 송미혜, 2006;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이경하, 2009; 이호영, 2006; 전병순, 2008; 최형성, 2002).

즉,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5. 양육효능감과 가족기능성

가족기능성의 균형은 어려운 상황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은 위기 및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다. 가족 체계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응통성이 높을 때 가족은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높은 반면 가족의 응집성과 응통성이 낮을수록 가족은 균형을 이룬 기능적인 가족이다(Olson, 1997; Woodehouse, 1990). 유아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에서 가정의 역할은 중요하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성장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행을 하게 된다.

가족기능성은 개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 기능도 포함한다. 먼저 가족기능성의 긍정적 기능으로서 지원기능을 살펴보면, 가족지원이 제공하는 지원의 유형은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으로 기술될 수 있다(Pearson, 1986). 구체적으로 지원 기능을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공감, 격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도구적 지원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들의 양을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도움을 말하며, 정보적 지원은 자녀양육이나 양육행동에 관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Crockenberg, 1988). 가족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기능을 향상시켜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며, 정보나 충고 및 양육을 위한 도구적인 원조를 해주고,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4).

특히 양육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의 기본적인 태도와 신념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지고 가족의 중심 역할인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미, 1990; 현미진, 1997). 이는 양육 효능감이 어머니의 가족기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데 전념하기 때문에 유약한 구성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양육 기능에 치우쳐 다른 가족원들의 정서적 안정, 휴식, 오락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어머니는 혼자서 양육을 책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중시되면서도 다른 가족들의 필요와 요구에도 주의를 가져야 한다(이은덕, 1998).

유아 가족의 성공적인 기능은 가족성원 전체가 각자의 필요가 존중받으면서 유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기능성은 환경 적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데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의사소통만을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가 변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가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응 양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족들의 노력에 의해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 표현력이 향상되어 유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 경우 유아로 인해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거나 좌절하기 보다는 주위의 도움과 자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해결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높은 효능감은 자녀 양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들 것이고, 이것은 가족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든다(현미진, 1997; Bandura, 1997, Johnston, Mash, 1989). 이는 가족기능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6. 영재성

가. 영재의 개념

영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영재를 판별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영재(the gifted)는 문헌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이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무엇이 가치로운가 하는 것과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Gagne, 1998).

상식적으로 어떤 아동이 나이에 기대치 않던, 그래서 놀랄 정도로 높은 지식이나 기술을 나타내 보이면 영재라고 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영재라는 개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학과 영역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는 아동을 영재라고 흔히 규정하며, 심리 특정학적 지능이론에 입각한 대부분 영재이론가들은 상위 2% ~ 3% 이내의 지능수준을 가진 집단을 영재라고 한다(Lupkowski & Lupkowski, 1985).

혹은 창의성을 영재성과 동일시하는가 하면(Clark, 1997), 평균이상의 능력과 창의성 및 과제에 대한 열중 등 몇 가지 성격으로 영재성을 규정하기도 한다. 전경원(2000)은 저서 '영재교육론'에서 “ ‘영재아’란 영재아(gifted), 재능아(talented) 또는 창의아(creative)의 혼용된 의미로 넓은 의미의 ‘영재아’로 통일하여 지칭” 하고 있다. “또한 영재아의 용어 안에는 조숙(아), 신동, 천재(아), 수재(아), 재능(아), 우수아 등 모든 용어들을 총칭한다. 이는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과거의 지능 중심의 개념에서 재능까지 확대된 개념이며, 또한 창의성을 강조하는 복합적인 심리학적 개념을 의미한다”고 하여 언어, 수리, 논리적 사고 위주의 지능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특수 영역의 능력을 영재의 개념에 포함하고, 창의성을 영재의 중

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교장면에서 가장 흔히 적용되어온 개념은 지적 영재로서, 일반적으로 지적 영재는 지능검사에서 IQ 130이상 혹은 능력검사나 성취검사에서 볼 때 평균에서 두 표준편차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그러나 유아기 아동의 경우는 영재의 개념이 덜 명확하며, 아직 학업적 성취를 획득하여 나타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때론 몇 영역에 걸쳐 우수한 성취를 보일 잠재력으로 규정되기도 한다(Hodge & Kemp, 2000). 한편, 영재란 일반적 학업적 기술이나 보다 특정영역(음악, 미술, 과학, 등)에서 자기 또래들에 비해 앞선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아동을 말한다(Walker, Hafenstein & Crow-Enslow, 1999).

최근에는 지능에도 단일 능력보다는 여러 영역의 능력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Gardner(1983, 1999)는 다지능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인간의 지능은 일반 지능이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언어, 수리적 추리 능력을 포함하며 적어도 8가지의 서로 독립적인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 개인이 이 8가지의 지능에서 다 강할 수는 없으며, 이 가운데 강한 지능과 약한 지능이 있어 독특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에 의해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Gardner(1983)는 “지능이란 생물심리학적 잠재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영재성(giftedness)이란 “문화권에 현존하는 어떤 영역에서 생물심리학적 잠재력이 조속하게 나타는 사인”이라 하여, 영재성은 특정 영역 혹은 영역들에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한 영역에서의 영재성의 극단적인 형태를 신동(prodigiousness)이라 하여, 모차르트, 가우스, 밀레 등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난 다른 신동들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천재(genius)는 전문가이며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의의를 지닌 원리들을 발견하거나 분야의 한계를 변형시킬 정도의 업적을 나운 사람들이다.

일부에서는 영재를 정보처리적 입장에서 정의하기도 하였다(Porter, 1999). 이러한 입장에서 영재아들이 우수하게 나타내는 지적 능력은 지식 기반과 기억에서 정보를 인출해내는 능력, 문제해결에서 기술과 전략의 사용, 문제해결 전략을 규제하고 통제하며, 관리하는 초인지적 능력 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영재의 개념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두뇌의 기능과 학습과정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 Clark(1988)은 다음과 같이 영재성을 정의하고 있다. 영재성이란 신체적 감각, 감정, 인지와 직감을 포함한 두뇌의 기능들을 가속화하고 진전된 통합에서 나오는 높은 지능을 가리키는 생물학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가속화되고 진전된 기능은 인지, 창의성, 학업적 적성, 지도성, 혹은 시각적 예술과 공연예술에 관계되는 능력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능의 정의에 의하면, 영재란 높은 수준의 지능을 발휘하거나 발휘할 잠재성을 보이는 개인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들에 의하여 영재를 정의한다면 영재란 특정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이 있는 자로 정의 할 수 있다.

나. 영재의 특성

영재에 대한 여러 문헌에는 영재들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일반 아동들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Abraham(1976)에 따르면 영재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더 일찍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의집중과 적응을 잘하며 착하고 유머가 풍부하다. 또한 영재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며 행복하고 일에 몰두하고 독립적이며 능동적이다(Hildreth,

1954). 이들은 독자적이고 정열적이며 자주적이다(Callagher, 1975). 이들은 순응을 거부하고 칭찬 받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Newland, 1976). 이와 같이 영재의 특성은 영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한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장언효, 1985). 또한 영재 초기에는 영재를 일종의 비정상적인 관점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 특성 또한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Terman(1925)은 「천재의 유전적 연구」에서 영재들이 보통사람과 행동특성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영재의 특성을 학습특성, 동기적 특성, 창의적 특성, 지도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용대, 1990)

(1) 학습특성

영재들은 어휘력이 풍부하고 모든 면에 걸쳐 풍부한 정보량, 정확한 기억력, 예리한 관찰력, 많은 독서량과 사물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논리에서의 오류나 사고의 불일치 및 차이점을 변별하였고, 논리·수학적 지능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력과 분류능력, 패턴을 예측하는 능력과 공간영역에서의 퍼즐, 미로를 다루는 능력이나 모형을 조작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복순, 최순실, 한석실, 1995)

(2) 동기 특성

어떤 일에 몰두하고 탐닉하며 완벽하게 끝마치려는 지구력과 집중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이 탁월하고, 또한 남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며, 논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힘이 있었다.

(3) 창의적 특성

호기심이 많고, 주어진 문제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공하며, 유머감각이 풍부하고, 자료를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흥미롭고 독창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었다.

(4) 지도자적 특성

책임감이 강하며,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높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과 자신감이 매우 넘쳤다.

(5) 의사 전달 특성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하나의 단어라도 다른 학생에 비해 폭넓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잘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Tuttle과 Backer(1983)는 영재의 특성을 ① 호기심이 많다 ②관심을 갖고 의문을 갖는 것을 끝까지 추구한다. ③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④수준 높은 언어적 유머 감각이 있다 ⑤개인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의감을 갖는다. ⑥여러 분야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다 ⑦피상적인 진술, 반응, 평가를 수용하지 않는다. ⑧일반적인 원칙을 쉽게 이해한다. ⑨인쇄된 매체 이외의 매체를 자주 이용하며 반응한다. ⑩무척 다양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관계 지을 수 있다 ⑪구체적인 자극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창출해 낸다. 등을 들고 있다(김동일, 1999, 재인용).

이러한 영재의 특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개인차 또한 심하다. 임형철(1993)은 교육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개인으로서의 만족한 생활을 물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장시켜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의 하나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영

재의 특성을 이해하며 그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재로 판별되어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영재유아 어머니 97명과 유치원에 재원중인 일반유아 어머니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서 먼저 부산과 울산에 소재하는 KAGE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150명의 유아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된 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유아 어머니의 경우 부산시내 유치원을 임의 선정하여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어머니 19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된 1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46)**

구 분		영재유아 어머니 (n=97)	일반유아 어머니 (n=149)
		빈도(%)	빈도(%)
자녀 성별	남아	59(60.8)	76(51.4)
	여아	38(39.2)	72(48.6)
자녀 연령	만 3세	24(24.7)	40(26.8)
	만 4세	26(26.8)	52(34.9)
	만 5세	47(48.5)	57(38.3)
자녀 수	1명	36(37.1)	39(26.2)
	2명	51(52.6)	94(63.1)
	3명	10(10.3)	15(10.1)
	4명 이상	0(0)	1(0.7)
어머니 연령	26~30세	1(1.0)	6(4.0)
	31~35세	20(20.8)	57(38.3)
	36~40세	50(52.1)	67(45.0)
	41세 이상	25(26.0)	19(12.8)
어머니 최종 학력	고졸	0(0)	28(19.0)
	전문대졸	12(12.4)	53(36.1)
	대졸	62(63.9)	60(40.8)
	대학원 이상	23(23.7)	6(4.1)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미만	0(0)	11(7.5)
	200~300만원 미만	4(4.1)	38(25.9)
	300~400만원 미만	7(7.2)	41(27.9)
	400만원 이상	86(88.7)	57(38.8)
직업	주부	67(69.1)	88(59.1)
	서비스직	2(2.1)	8(5.4)
	판매직	2(2.1)	6(4.0)
	사무직	5(5.2)	18(12.1)
	전문직	20(20.6)	21(14.1)
	기타	1(1.0)	8(5.4)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척도와 문헌들(신숙재, 1997; 조인경, 2004; 최형성, 정옥분, 2001; Allen, 1993; Coleman & Karraker, 2003; Johnston & Mash, 1989; Teti & Gelfnad, 1991)을 기초로 이양희와 조영숙(2007)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총 26문항으로 의사소통 8문항, 교육 8문항, 전반적 양육효능감 5문항, 통제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서 ‘의사소통’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등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은 양육에 대한 지식,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지도,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반적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느끼는 전반적인 상황이나 느낌과 관련이 있다. ‘통제’는 자녀의 행동이나 감정적인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간 상관계수 0.30이하에 못 미치는 8, 17, 20, 21, 24, 26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문항은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변 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값
의사소통	1, 2, 3, 4, 5, 6, 7	7	.88
교육	9, 10, 11, 12, 13, 14, 15, 16	8	.86
전반적 양육효능감	18, 19	2	.83
통제	(22), (23), (25)	3	.66
계		20	.86

()는 역채점.

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지영(2001)이 Cr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의 문항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총 18문항으로 아동행동특성 8문항, 부모역할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 5점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서 '아동행동특성'은 아이가 음식투정이 심하거나,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아 힘들게 하는 행동, 계속 놀아달라고 조르는 행동등 아동의 행동적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이다. '부모역할'은 아이로 인하여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것,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는 것, 밤에 아이로 인해

외출하기 어려운 것 등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간 상관의 신뢰도 0.30이하에 못 미치는 5, 6, 9, 12, 17, 18번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 변인별 문항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변 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값
아동행동 특성	1, 2, 3, 4, 7, 8	6	.73
부모역할	10, 11, 13, 14, 15, 16	6	.77
계		12	.83

다. 가족기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기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족응집성과 가족응통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Ⅱ(FACESⅡ)를 사용하였다. Olson 등(1982)이 개발한 척도인 FACESⅡ 이후에 개발된 FACESⅢ보다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Hampson 등(1991)은 FACESⅢ의 신뢰도와 동시타당도는 FACESⅡ 보다 낮다고 하였다. 따라서 FACESⅢ보다는 FACESⅡ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김수연, 김유숙, 전영주, 2003).

FACEⅡ는 부모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응집성 16개의 문항과 융통성 1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5=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에서 ‘가족응집성’은 가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융통성’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응집성을 측정하는 15번 문항과 융통성을 측정하는 10번 문항이 문항간 전체 상관의 신뢰도 .30이하로 떨어져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가족기능성의 측정도구의 하위 변인별 문항은 다음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FACES II (가족기능성) 척도의 하위 범주 및 문항

변 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값
가족응집성	1, (3), 4, 5, 7, 11, 13, 17, (19), 21, 23, (25), 27, (29), 30	15	.88
가족융통성	2, 6, 8, (9), (12), 14, 16, 18, 20, 22, (24), 26, (28)	13	.83
계		28	.92

()는 역채점.

3. 연구절차

본 조사의 연구대상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3곳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0년 12월 6일에서 12월 28일까지 조사하였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KAGE 영재교육원 3곳과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KAGE 영재교육원 1곳에 재원중인 영재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12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유치원의 원장·원감선생님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가정통신문과 함께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영재교육원의 어머니에 대한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영재교육원에 방문하여 원장님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구한 후 원장님께서 학부모의 허락 하에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유치원에 190부, 영재교육기관에 150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회수된 질문지 중 일반유아 어머니 질문지 149부(77.5%), 영재유아 어머니 질문지 97부(64.5%)를 회수하여 총 246부(71.7%)를 자료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or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다.

IV. 연구결과

1.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차이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간에 의사소통, 교육, 양육효능감 전체, 아동행동특성, 양육스트레스전체, 가족응집성, 가족응통성, 가족기능성 전체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서 보면, 양육효능감 전체는 영재유아 어머니($M=3.91$)가 일반유아 어머니($M=3.6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33, p<0.01$), 하위요인의 의사소통은 영재유아 어머니($M=4.18$)가 일반유아 어머니($M=3.95$)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96, p<0.001$), 교육은 영재유아 어머니($M=3.94$)가 일반유아 어머니($M=3.59$)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42, p<0.001$).

양육스트레스에서 보면, 양육스트레스전체는 영재유아 어머니($M=2.06$)가 일반유아 어머니($M=2.24$)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24, p<0.05$), 하위요인의 아동행동특성은 영재유아 어머니($M=2.28$)가 일반유아 어머니($M=2.55$)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87, p<0.001$).

가족기능성에서 보면, 가족기능성전체는 영재유아 어머니($M=4.05$)가 일

반유아 어머니(M=3.84)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33, p<0.01$), 하위요인의 가족응집성은 영재유아 어머니(M=4.15)가 일반유아 어머니(M=3.96)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2.76, p<0.05$), 가족응통성은 영재유아 어머니(M=3.96)가 일반유아 어머니(M=3.73)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70, p<0.001$).

<표 5>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t검증 결과

변 인		유아구분	<i>n</i>	<i>M</i>	<i>SD</i>	<i>t</i>
양육 효능감	의사소통	영재유아 어머니	97	4.18	0.54	2.96***
		일반유아 어머니	149	3.95	0.61	
	교육	영재유아 어머니	97	3.94	0.59	4.42***
		일반유아 어머니	149	3.59	0.60	
	전반적	영재유아 어머니	97	3.58	0.75	1.46
	양육효능감	일반유아 어머니	149	3.43	0.79	
	통제	영재유아 어머니	97	3.97	0.76	1.84
		일반유아 어머니	149	3.78	0.81	
	양육효능감	영재유아 어머니	97	3.91	0.54	3.33**
	전체	일반유아 어머니	149	3.69	0.51	
양육 스트레스	아동	영재유아 어머니	97	2.28	0.75	-2.87**
	행동특성	일반유아 어머니	149	2.55	0.70	
	부모역할	영재유아 어머니	97	1.83	0.58	-1.08
		일반유아 어머니	149	1.92	0.75	
	양육스트레스	영재유아 어머니	97	2.06	0.56	-2.24*
	전체	일반유아 어머니	149	2.24	0.64	
가족 기능성	가족응집성	영재유아 어머니	97	4.15	0.46	2.76**
		일반유아 어머니	149	3.96	0.56	
	가족응통성	영재유아 어머니	97	3.96	0.41	3.70***
		일반유아 어머니	149	3.73	0.50	
	가족기능성	영재유아 어머니	97	4.05	0.42	3.33**
	전체	일반유아 어머니	149	3.84	0.51	

* $p<.05$ ** $p<.01$ *** $p<.001$

2.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관계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먼저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부적상관($r = -.40, p < .01$)을, 가족기능성 전체와는 정적상관($r = .51, p < .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와 변인 내 하위요인(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양육효능감, 통제)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75 \sim .87, p < .01$). 양육효능감 전체와 가장 상관이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전반적 양육효능감($r = .87, p < .01$)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가족기능성 전체와 부적상관($r = -.32, p < .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변인 내 하위요인(아동행동특성, 부모역할)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81 \sim .90, p < .01$).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가장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아동행동특성($r = .90, p < .01$)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성 전체는 변인 내 하위요인(가족기능성, 가족응통성)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 = .96 \sim .97, p < .01$). 가족기능성 전체와 가장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가족응집성($r = .97, p < .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유아 어머니의 경우 <표 7>의 결과에 의하면 양육효능감 전체는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부적상관($r = -.42, p < .01$)을, 가족기능성 전체

와는 정적상관($r=.50, p<.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전체와 변인 내 하위요인(의사소통, 교육, 전반적 양육효능감, 통제)간에 상관을 보이고 있다($r=.58\sim.81, p<.01$). 양육효능감 전체와 가장 상관이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교육($r=.81, p<.01$)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 전체는 가족기능성 전체와 부적상관($r=-.43, p<.01$)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변인 내 하위요인(아동행동특성, 부모역할)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88\sim.90, p<.01$). 양육스트레스 전체와 가장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부모역할($r=.90, p<.01$)로 나타났다.

가족기능성 전체는 변인 내 하위요인(가족응집성, 가족응통성)간에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95\sim.96, p<.01$). 가족기능성 전체와 가장 큰 변인 내 하위요인은 가족응집성($r=.96, p<.01$)으로 나타났다.

**<표 6>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변인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의사 소통	교육	전반적 양육 효능감	통제	양육 효능감 전체	아동 행동 특성	부모 역할	양육 스트 레스 전체	가족 응집성	가족 융통성	가족 기능성 전체
의사 소통	1										
교육	.68**	1									
전반적 양육 효능감	.69**	.71**	1								
통제	.51**	.41**	.45**	1							
양육 효능감 전체	.85**	.83**	.87**	.75**	1						
아동 행동 특성	-.27**	-.14	-.26**	-.38**	-.33**	1					
부모 역할	-.28**	-.15	-.31**	-.41**	-.36**	.45**	1				
양육 스트 레스 전체	-.32**	-.17	-.33**	-.46**	-.40**	.89**	.81**	1			
가족 응집성	.38**	.40**	.40**	.34**	.46**	-.39**	-.10	-.31**	1		
가족 융통성	.44**	.51**	.42**	.41**	.54**	-.36**	-.15	-.31**	.87**	1	
가족 기능성 전체	.42**	.47**	.42**	.38**	.51**	-.39**	-.13	-.32**	.97**	.96**	1

**p<.01

**<표 7>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변인	의사 소통	교육	전반적 양육 효능감	통제	양육 효능감 전체	아동 행동 특성	부모 역할	양육 스트 레스 전체	가족 응집성	가족 융통성	가족 기능성 전체
의사 소통	1										
교육	.69**	1									
전반적 양육 효능감	.51**	.59**	1								
통제	.22**	.20*	.14	1							
양육 효능감 전체	.79**	.81**	.77**	.58**	1						
아동 행동 특성	-.37**	-.31**	-.31**	-.10	-.36**	1					
부모 역할	-.30**	-.30**	-.34**	-.21*	-.39**	.57**	1				
양육 스트 레스 전체	-.37**	-.34**	-.37**	-.18*	-.42**	.88**	.90**	1			
가족 응집성	.39**	.39**	.30**	.31**	.47**	-.37**	-.34**	-.40**	1		
가족 융통성	.44**	.45**	.29**	.30**	.50**	-.35**	-.40**	-.43**	.85**	1	
가족 기능성 전체	.43**	.44**	.31**	.32**	.50**	-.37**	-.38**	-.43**	.97**	.96**	1

*p<.05 **p<.01

3. 유아영재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가.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영재유아 어머니의 경우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아동행동 특성, 부모역할)와 가족기능성(가족응집성, 가족 융통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양육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요인 중에서 가족 융통성($\beta = 0.66$)과 부모역할($\beta = -0.27$)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영향력은 37%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간의 VIF값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은 없다.

<표 8>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i>B</i>	β	<i>R</i>	<i>R</i> ²	<i>F</i>
양육 효능감	가족 융통성	.66	.50***	0.61	0.37	27.37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27	-.29***			

*** $p < .001$

나.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일반유아 어머니의 경우에서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아동행동 특성, 부모역할)와 가족기능성(가족 응집성, 가족 융통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양육효능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요인 중에서 가족 융통성($\beta=0.41$)과 부모역할($\beta=-0.1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영향력은 29%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간의 VIF값이 모두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은 없다.

<표 9>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

종속 변인	독립 변인	<i>B</i>	β	<i>R</i>	<i>R</i> ²	<i>F</i>
양육 효능감	가족 융통성	.41	.40***	0.539	0.290	29.838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15	-.23***			

*** $p<.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영재유아와 일반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간의 관계와 차이를 알아보고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이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간에 양육효능감 전체, 의사소통, 교육, 양육스트레스전체, 아동행동특성, 가족기능성 전체, 가족응집성, 가족응통성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서의 양육효능감 전체는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효능감 전체에서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과제를 높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보다 평균이 높다는 (이순복,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의사소통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유아에게 상호작용의 역할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Albino(1985)는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은 평범한 아동을 영재아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하고, Strom과 Slaughter(1978)는 유아기가 가장 빠른 성장기이며, 이때 부모들과 가장 친밀한 시기이고, 가치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영재 유아들은 어머니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영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영재유아 어머니들이 일반유아 어머니들보다 교육면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선택의 기회를 자주 제공했으며 자녀의 행동과 놀이를 격려했다고 보고한 Dewing(197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양육스트레스에서의 양육스트레스전체에서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행동특성에서도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 전체에서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보다 평소 자녀에 대한 불안, 적대감, 충동성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보다 자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일반유아 어머니보다 더 수용적, 자율적인 양육을 제공함(구미숙, 김동준, 2003; 양소희, 2006)으로 인해 영재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행동특성에서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아동행동특성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영재유아가 일반유아보다 사회성숙도와 사회적응도가 높아(최수연, 2003),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유아의 사회성숙도와 적응도가 높음으로 인해 영재유아 어머니는 자녀에게 합리적인 지도와 애정을 갖게 됨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유기성(2009)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가족기능성에서의 가족기능성전체는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응집성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응통성은 영재유아 어머니가 일반유아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의 가족기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가족기능성 영역에서 비교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모두 양육효능감은 가족기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 가족기능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손소정 2007; 안주선, 2007 재인용)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기능성과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수원, 2005)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의 요인 중에서 가족 응통성과 부모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응통성이고 다음으로는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상호작용이 응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지니고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가족응통성에서 발생하는 양육효능감이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현미, 2004; 도현심, 2004; 손재익, 2010)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일으켜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

효능감은 낮은 수준이었다(김현미, 2006; 송미혜, 2006; 이경하, 2009; 이호영, 2006; 전병순, 2008)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의 관계와 차이를 알아보고,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간에 양육효능감 전체, 의사소통, 교육, 양육스트레스전체, 아동행동특성, 가족기능성 전체, 가족응집성, 가족융통성에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둘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본 결과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 모두 양육효능감은 가족기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 가족기능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성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의 요인 중에서 가족 융통성과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융통성이고 다음으로는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의 연령에 따른 부모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영재유아 부모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더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영재발달 및 영재교육에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필선(2001). 영재아 부모의 배경과 양육특성에 관한 조사 연구. 순천향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홍숙(2001).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문적 자아개념, 부의 학력, 성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4(1), 249-261.
- 권미나(2004). 가족기능과 유아의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윤희(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정희(1998).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미숙(2003). 영재유아 어머니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가윤(201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1999). **학습부진 영재아동**. 서울 : 원미사.
- 김동춘(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 어머니의 양육태도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경(2010). 걸음마기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

김미숙(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영(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원(2006).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및 영유아의 울음과 기질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디지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의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 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주(2009)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양육특성.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훈육방식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혜(2011).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보육서비스 질의 영향 :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비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화(2004). 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 연구 : 부모 교육참여 측정도구 개발을 통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휘(2001).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의 역할**. 교육과학사.

김향은, 정옥분(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 어머니의 역할 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4),

179-193.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류기자(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36(99.6), 97-107.
- 문혁준(2000).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부모훈육방법에 대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 11. 81-94.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대한가족학회지**, 17(1), 245-258.
- 박성연, 전춘애(2003). **자녀와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성연,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회지**, 27(1), 245-258.
- 박응임(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2(1), 117-129.
- 서민정, 장은, 정철호, 최상용(2002).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8(1), 69-81.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손재익(2010).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가족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 비장애아동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남호(1989). 만성질환자 가족군과 정상 가족군의 가족적응력과 가족 결속력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민(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용대(1990).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소희(2006). 영재 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 아동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 및 영재 인식에 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유기성(2009). 영재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양육효능감의 관계 분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덕(1998) 장애아 가족의 가족기능과 가족지지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 전인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 1, p203-237.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돈, 황용연(1992). **신경 발달 심리학**. 서울: 배영사
- 이순복(2005). 부모가족특성이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슬기(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2008) 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주도 학습력과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2006). 유치원 어머니의 부모교육참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형철(1993). 영재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위영희(1997). 어머니의 교육 신념과 자기 효능감,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 24, 657-684.
- 장성희(2010). 부모의 창의적 성격 특성, 가족기능성, 온정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행동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언호(1985).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과 교육방안**.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원(2000). **영재교육학**. 서울 : 학문사.

- 전인옥(1997).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병순(2008).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놀이
성과의 관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석희(1987). **취학전 영재의 학습전략 습득 및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2001). 획일 교육의 허점과 영재교육. **지역사회**, (2), 28-36.
- 조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
조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연(2001). 영재아의 부모 특성이 영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간의 놀이성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
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미진(1997). 장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통제 대처 행동과의 관
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Abraham. W. (1976) Counseling the gifted. *Focus on Guidance*, f, 1-11.
- Bandura, A.(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교역. 서울:교육과학사.

Bloom.B.S(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antino Books.

Brody, G. H., Flore,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 5, p1197-1208.

Clark, (1997). *Growing p gifted*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Clark, (1988). *B Growing up gifted*. Columbus, OH : Merrill Publishing Company.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91, 1628-637.

Duma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P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Feldman, D. H.(1999).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pp. 169-186).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gne, F. (1998). A proposal for subcategories within gifted or talented populations. *Gifted Child Quarterly*, 42, 87 - 95.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 Basic Books.

Hildreth, G.(1954). "Three gifted children :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85, 239 -62.

Hodge, A. H. & Kemp, C. R.(2000). Exploring the nature of giftedness

-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4 (1), 46 -73.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 Lupkowski A. E. & Lupkowski E. A. (1985) Meeting the needs of gifted preschoolers. *Children Today*, 14(2), 10 - 14.
- Mondell, & Tyler, T.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Newland, T. E.(1976). *The gifted in socio - educational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 Hall.
- Patterson, G. R.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6.
- Porter, L (1999). *Gifted young children Aguide for teachers and parents*. UK : Buckingham.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hapiro, J. R., & Mangelsdorf, S. C.(199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competence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6), 621-641.

Terman, L. M(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Bolume I. :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Palo Alto, C A : Stanford University Press.

Teti, D. M., & Gelfand,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p918 - 929.

Tuttle, Jr. F. & Becker, L. (1983). *Program design and development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2nd ed). NEA

Walker, B, Hafenstein, N. L. & Crow - Enslow, S (1999). Meeting the needs of gifted learner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Young Children*, 54(1), 32 - 36.

부 록

어머님께

안녕하십니까?

평소 자녀를 양육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가족기능성에 관한 연구로서 어머니의 양육에 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지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단지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각 문항에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개인별 응답내용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 소속 등은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잘 모르는 문항이 있더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 빠짐없이 문항마다 한 칸에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바를 솔직하게 써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성하신 설문지는 자녀를 통해 다시 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어머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정선미 올림

◆ 다음 문항들은 본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한 가지만 골라 해당번호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어머니의 자녀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아 ② 여아

2. 어머니의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3. 자녀의 태어난 년도와 월을 적어주십시오.

(년 월)

4. 어머니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세~40세 ⑤ 41세 이상

5. 어머니의 최종학력을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년(3년)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이상

6. 귀 가정의 월 평균 총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7.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주부
② 생산직 (생산직 근로자, 기능공, 운전기사 등)
③ 서비스직 (음식점, 숙박업, 조리사, 미용실, 여행사, 승무원, 경찰, 소방관 등)
④ 판매직 (도매상 및 소매상의 경영주, 판매원 등)
⑤ 사무직 (공무원, 회사원, 은행원, 사무관련 종사자 등)
⑥ 전문직 (교육자, 법률인, 의료, 예술인, 전문 엔지니어, 사회복지사, 종교인 등)
⑦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_____)

◆ 다음은 부모 역할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생각하면서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아이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2.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짜증을 내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	나는 아이의 감정이 상했을 때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6.	나는 피곤할 때에도 내 아이의 요구사항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7.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가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다.					
8.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9.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10.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1.	나는 내 아이에게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대해 잘 가르친다고 느낀다.					
12.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13.	나는 아이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해 줄 수 있다.					
14.	나는 내 아이에게 효과적인 벌을 주고 지도한다.					
15.	나는 일관된 방식으로 내 아이를 지도한다.					
16.	내 아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17.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18.	나는 부모로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에 잘 대처한다.					
19.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					
20.	나는 내 아이를 잘 지도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21.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22.	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어렵다.					
23.	나는 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					
24.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긴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해결 할 수 있다.					
2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26.	나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다.					
--	--------------------	--	--	--	--	--

◆ 이 질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를 생각하면서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칸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어질러 놓은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계속 치 워야 한다.					
2.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하고 칭얼대고 불평한 다.					
3.	식사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 (음식에 대해 까다롭거나 불평하는 등)					
4.	아이가 잔소리 없이는 시키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5.	아이 돌보는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 다.					
6.	아이의 스케줄(예: 유치원이나 다른 활동 들) 때문에 내 일이나 가정 일에 지장이 온다.					
7.	아이는 내게 함께 놀아주거나 즐겁게 해주 기를 강요한다.					
8.	아이는 잠자리에 들 때 자지 않으려고 해 서 나를 힘들게 한다.					
9.	집안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걸리적거린다.					
10.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 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11.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일로 인해 내 계획 을 바꾸어야만 한다.					
12.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더럽혀서 갈아 입혀야 한다.					

13.	개인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14.	공공장소(식품가게, 쇼핑센터, 음식점)에서 아이를 다루기가 어렵다.					
15.	외출할 때 제 시간에 집을 나서기 위해 아 이를 준비시키려면 어렵다.					
16.	밤에 아이를 두고 나가거나, 다른 곳에 맡 기고 떠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17.	아이가 친구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싸우거나, 사이좋게 지내지 못 하거나, 친구가 없는 경우 등)					
18.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한다.					



◆ 다음은 어머니가 평소에 가족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어머니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주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다.					
2.	우리 식구는 누구나 쉽게 자기 생각을 가족들에게 이야기 한다.					
3.	고민이나 비밀이 있으면 식구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의논하는 편이다.					
4.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모든 식구가 참여한다.					
5.	우리 식구들은 집에 오면 그 날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한다.					
6.	우리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이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7.	집안에 일이 생기면 우리 식구는 함께 일을 처리한다.					
8.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은 함께 의논하고 의논을 통해 만족스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					
9.	우리 식구들은 멋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10.	우리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집안일을 돌본다.					
11.	우리 식구는 각자의 친구를 좋은 친구로 인정한다.					
12.	우리 집의 규칙은 상황에 맞게 조절된다고 본다.					
13.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들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다.					
14.	우리 식구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스스로 스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15.	우리 가족은 집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다.					
16.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17.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낀다.					
18.	우리 가족은 가족원 누구에게나 규칙(또는 상과 벌)을 공정하게 적용한다.					
19.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서 더 깊은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20.	우리 식구는 문제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21.	우리 가족은 가족이 내린 결정을 잘 따른다.					
22.	우리 식구는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는 편이다.					
23.	우리 식구는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24.	우리 가족의 규칙을 바꾸기가 힘들다.					
25.	우리 가족은 집에서 서로 대화하기 싫어한다.					
26.	우리 식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상의하는 편이다.					
27.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8.	우리 가족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을 서로 꺼리는 것 같다.					
29.	가족 전체가 행동하기 보다는 몇몇 가족원 끼리만 짝을 지어 행동하는 편이다.					
30.	우리 가족은 취미활동을 같이 하는 편이다.					